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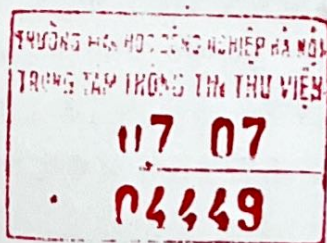
누구에게 표현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동사인가 형용사인가조사의 쓰임이 바르게 인용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가 시제가 바르게 쓰였는가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가 띄어쓰기가 바르게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문장의 표현 형식을 달리 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마지막 인사말로 쓰는 “안녕히 계십시오.”는 “계십시오”로 쓰지 않는다. “계시다”에 연결되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다. “계십시오”로 문장이 끝나지 않으므로 ‘오’가 연결된다. 이와 달리 ‘요’는 조사여서 “집에 가.”와 같이 문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는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구어체는 상황(격식적인 상황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문체가 달라진다. 참고로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격식체를 써야 한다. 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는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구어체는 상황(격식적인 상황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문체가 달라진다. 참고로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격식체를 써야 한다. 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누구에게 표현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 띄어쓰기가 바르게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쓰 끝가 누구냐에 달라진다. 그리고 구어체는 상황(격식적인 상황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문체가 달라진다. 참고로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격식체를 써야 한다. 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누구에게 표현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 띄어쓰기가 바르게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쓰 끝가 누구냐에 달라진다. 그리고 구어체는 상황(격식적인 상황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문체가 달라진다. 참고로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격식체를 써야 한다. 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누구에게 표현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 띄어쓰기가 바르게 누군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쓰 끝가 누구냐에 달라진다. 그리고 구어체는 상황(격식적인 상황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문체가 달라진다. 참고로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에는 격식체를 써야 한다. 장이 끝날 때 붙는다. 구어체

김경환 유하라 현원숙 김희경 오광근 홍은실 지음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 ✓



김경훤 유하라 현원숙 김희경 오광근 홍은실 지음



최근 한국 대학에 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대학에서 필요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는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유학생의 원만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원에서 배웠던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기초적 한국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문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교양 지식은 물론 전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시리즈를 개발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이 교재는 유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에서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학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므로 학습 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학업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할 것으로 믿는다.

이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는 유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교재이다. 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교수나 학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유학생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교재에서는 유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문장의 오류를 찾아 스스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교재에 제시된 예문들은 유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보고서나 발표 자료, 토론문 등에서

나타난 오류문들이다. 유학생은 다른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문을 수정하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문장을 쓸 때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글을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교재는 2014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의 학부대학 내에서 한국어 집중학습 과정이 개설될 때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 학기가 끝날 무렵에 교재가 완성되었지만 유학생을 위해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 학기 동안 난상 토론이 진행되었고 2년 이상을 교재 집필에 매달려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교재 시리즈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되어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학업 성과도 크게 거두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재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학부대학 유홍준 학장님과 실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재의 집필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덧붙여 이 교재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종류의 교재 출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 일정, 삽화, 교열 교정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6년 4월

저자를 대표하여 김경원 씀

• 목차 •

• 머리말	4
• 일러두기	8

1과 누구에게 표현하는가	13
2과 어떤 상황인가	19
3과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1)	33
4과 문장 성분이 바르게 쓰였는가(2)	43
5과 동사인가 형용사인가(1)	53
6과 동사인가 형용사인가(2)	65
7과 조사의 쓰임이 바른가(1)	73
8과 조사의 쓰임이 바른가(2)	83
9과 인용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가	93
10과 시제가 바르게 쓰였는가	103
11과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가	113
12과 띄어쓰기가 바른가	121

참고

• 주의할 문장 부호	31
• 주의할 동사	38
• 부사의 호응	48
• 부정문의 유형	63
• 한국어 사전 찾아보기	64
• 조심해야 할 조사	88
• 자주 쓰이는 인용 표현	98
• 선어말 어미 ‘-더-’	108
• 자주 틀리는 표현	116

부록

• 문법 용어 설명	129
• 연습 문제 답안	139